



보도자료

담당자 김동겸 연구위원(3775-9058)
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6.3.27.(금) 조간부터
(온라인 2026.3.26.(목) 12:00부터)

매수 총 4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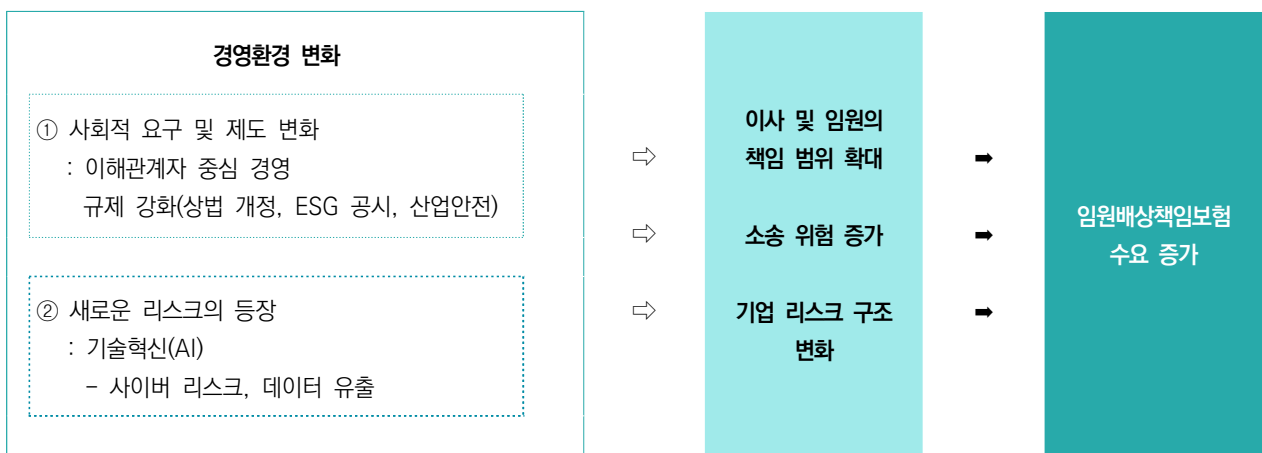
보험연구원, 『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과제』 CEO Report 발간

“기업 경영진 책임리스크 증가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 확대”

-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(금융시장분석실)은 최근 기업 경영환경 변화로 경영진의 법적·재무적 책임이 확대되는 양상을 분석하고, 이에 대응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전망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
- 최근 기업 경영환경은 디지털 전환, ESG 확산, 규제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리스크 구조를 보이고 있음
 - 기업의 책임 범위가 재무성과 중심에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 기준도 한층 엄격해짐
 - 내부통제 실패, 공시 오류, 감독의무 위반 등이 경영진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
- 특히, 제도 변화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수요 확대의 직접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
 - 2025년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‘회사’에서 ‘회사 및 주주’로 확대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와 권익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
 - 이에 따라 이사 및 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배임 관련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진 책임 리스크도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
- 한편, 기술혁신은 기업 리스크를 비정형·복합 위험으로 전환시키며 경영진 책임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음
 - AI, 데이터, 사이버 리스크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복잡해지고 있음
 - 이러한 위험은 단순한 실무 차원의 운영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책임으로 귀속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
- 이처럼 기업 리스크의 성격이 ‘운영위험’에서 ‘경영진의 책임위험’으로 이동하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후보상 수단을 넘어 핵심 리스크관리 장치로 기능이 확대됨
 -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경영진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,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임
 - 동 보험은 확대된 책임 환경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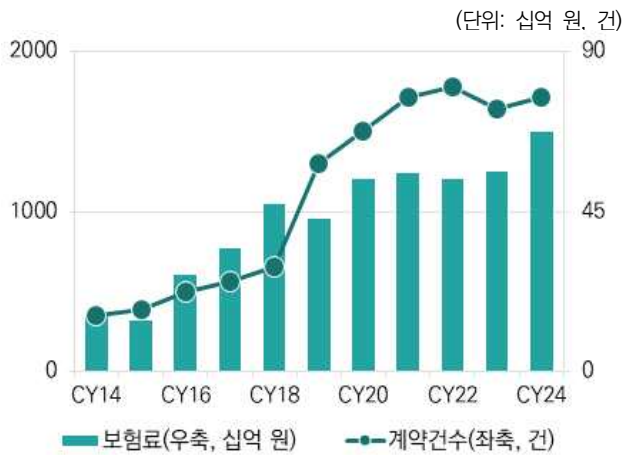
<그림 1>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역할



-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상장기업 중심 구조로 인해 한계도 존재함
 -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5.5% 성장하였으나, 시장규모는 약 672억 원 수준으로 아직 제한적인 수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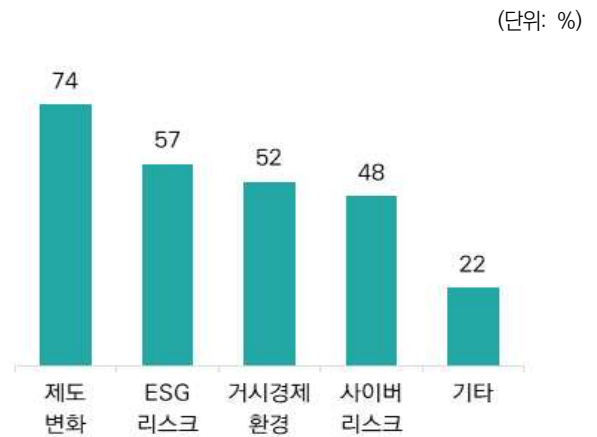
- 보험가입이 상장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규 가입 확대에는 일정한 제약이 존재함
- 한편, 보험회사 간 위험평가 및 인수역량 차이로 동일 위험군에서도 계약 조건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

<그림 2>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성



자료: 보험개발원, 손해보험통계연보, 각 연호

<그림3> 향후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영향 요인



주: D&O 시장의 영향 요인에 대한 24개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
 자료: Global Insuranc Law Connect(2025), "D&O Trends 2025"

○ 향후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은 **경영환경 변화와 책임 리스크 확대**에 따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됨

- 상법 개정, ESG 확산 등으로 경영진의 소송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- 상장기업 중심의 높은 가입률로 신규 가입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, 보장한도 증액과 담보 범위 정교화를 중심으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
-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강화와 리스크 인식 제고에 따라 중견·비상장기업으로 수요 기반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
○ 향후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**상품 및 제도 측면에서의 개선**이 필요함

- 확대된 경영진 책임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도 증액, 담보 범위 정교화 등 보험상품 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함.

- 장기손해(Long-Tail) 특성에 따른 손해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와 시장 안정성 확보가 요구됨
- 상장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중견·비상장기업으로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
-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책임 완화나 소송 유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책임 유인과 위험 분담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정비가 필요함

첨부: CEO Report 『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과제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